제 140 호
2007년 2월 26일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www.cans21.net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e-푸른성남

발행처 : 성남시 | 편집 : 공보담당관실 | 전화 : 729 - 2714~5 | FAX : 729 - 5439 | 우)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태평2동 3309번지)

'선배의 꿈과 정을 물려줍니다'

졸업생 교복 물려주기

선배들의 꿈이 묻어 있고 정이 배어있는 교복을 사랑스런 새내기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성남서중학교. 졸업생 510여명 중 절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3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며 함께 동거동락(?)해오던 교복을 1학년 신입생 동생들에게 물려주고 간 것이다.

지난 2월 13일 행사를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5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 교복을 사주겠다는 부모님을 오히려 설득해서 이 행사에 참여한 예비 중학생 승현이는 형들이 물려주고 간 옷을 입어 보며 매우 즐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망설이던 어머니도 아들을 대견해하며 흐뭇해했다.

학교 가정통신문을 보고 왔다는 오순심(38) 주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매우 만족스럽다며 기뻐했다. "이런 뜻 깊은 행사를 하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니게 돼서 무척 자랑스러워요. 많은 학교가 동참해서 이런 행사가 활성화됐으면 해요."

미처 떼어내지 않은 졸업생 형의 이름표가 달려 있는 교복을 챙겨가며 수줍게 웃던 승현이. 교정을 나서는 그에게 그날의 바람은 무척이나 포근했을 것이다. 선배들이 남기고 간 정 때문에….

박혜정 기자 misop215@yahoo.co.kr

<사진: 최선일·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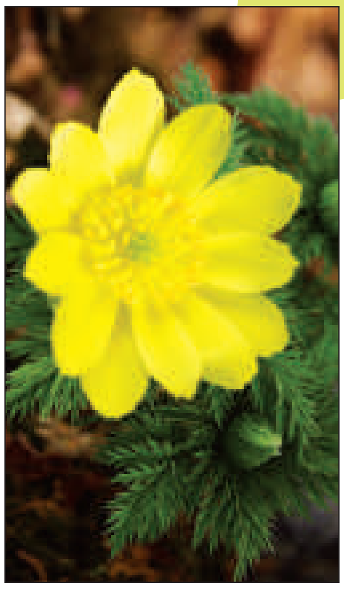
미래형 첨단도시 03

특집 열린 교육 08

함께하는 세상 12

문화·레포츠 14

성남의 향기 16



우리 고장 들꽃(1) 복수초(福壽草)

복수초(福壽草)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로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고, 얼음을 깨고 나온다고 하여 '얼음새꽃' 이라고도 하며, 눈 속에서 피는 연꽃이라 하여 '설연화' 라고도 한다. 또 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꽃이라 하여 부귀와 미도 겸비한 '꽃의 여왕' 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돼 자생하며 숲을 좋아한다. 크기는 높이 10~30cm 정도이며, 꽃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 또는 가지 끝에 1송이씩 핀다. 이른 봄철 눈이 녹기 전 식물 자체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의 눈을 녹일 만큼 뿌리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하얀 김이 난다. 연꽃처럼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에 닫히며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꽃잎이 열리지 않는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약재로도 사용한다. 진통제, 창종, 강심제(强心劑), 이뇨제(利尿劑)로 사용하며, 풍습성 관절염이나 신경통에도 효험이 있다. 강심작용이 탁월하여 심장대상 기능부전증,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신경쇠약, 심장쇠약 등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다. 특히 이뇨작용이 강하며 꽃 자체에 독성이 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유럽에도 이 꽃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옛날 '크논' 이라는 아름다운 여신이 있었다. 이 여신에겐 사랑하는 신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이 외동딸에게 용감한 토룡의 신과 결혼하기를 종용했다. 아버지의 이런 계획을 알고 크논은 어느 날 야음을 틈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도망쳤다. 화가 난 크논의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내 한포기의 풀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복수초가 된 것이다. 아이누족 사람들은 지금도 이 꽃을 '크논' 이라고 부른다.

식물학에서는 '아도니스' 라고 불리기도 하며 유럽에도 이 꽃이 있다.

이미숙 기자 kuk-whoa@hanmail.net

<사진제공: 들꽃사랑>

시립병원 설립지로 현 시청사 부지 크게 선호

여론조사 결과 현 시청사 부지 74%·신흥동 부지 23.5% 응답

성남시가 최근 시립병원 건립위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시립병원 설립부지로 시청사 이전 후 현 태평동 시청사 부지를 신흥동 부지보다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청사 부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신흥동 부지 23.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설립시 중요사항으로는 접근에 가까운 시민의 접근성(46.8%)을 가장 우선시했고 다음으로 큰 규모(26.3%)와 치유환경(19.5%) 순으로 응답했다. 접근성과 관련, 응답자 대부분이 병원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86.5%)했으며, 특히 대중교통의 용이성 등 교통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이후 이용편의도에서는 현 시청사 부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중 72.6%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현 시청사 부지가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 개원 후 응급환자나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서민의 교통부담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며,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번 조사는 1월 23일 개최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받아들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의뢰, 진행된 것이다.

수정·중원·분당구 지역 만 20세 이상 시민 1,002명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 전화 설문을 실시했으며 시립병원 설립위치, 시립병원 설립시 중요사항인 인지도·접근성·이용편의도와 관련한 질문답변 형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신뢰도는 95%, 표본오차율은 ±3.1%이다.

성남시는 앞으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시정시책에 반영,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시의 방침을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위생과 의료원설립팀 729-2340

성남시 도시이미지 바뀐다

●버스승강장 등 공공디자인 회색톤으로=성남시 거리에 설치된 각종 공공 시설물이 차분한 회색톤의 새 디자인으로 바뀐다.

시는 '성남시 통합 가로환경 구축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1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경원대학교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에 의뢰해 교통시설물, 교통제어시설물, 가로환경시설물, 시정홍보판 등 13가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택시승강장(쉘터형), 승강장 가로펜스 등 시내 공공시설물 56곳에 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디자인된 시설물은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가로등, 자전거거치대, 휴지통, 가로수덮개, 시정안내판 등이며, 개발된 디자인은 현재 의장등록 출원 중에 있다.

●시 상징 이미지 업그레이드=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의 발전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정보화·디지털화 추세에 부합되는 새로운 시 상징 개뉴얼(CIP)을 업그레이드해 제작한다.

현재의 시 상징 이미지는 지난 98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의 변화발전상을 표현하기에는 시대에 뒤진 면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 시설물 제작시 통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시 이미지는 시 마크·캐릭터·환경시설물·교통시설물 등 17개 분야 241종이다. 개발결과물로는 캐릭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3D 동영상 시뮬레이션, CIP 미니 웹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어, 성남시 홍보시 만화영화, 동영상 방송광고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됐다.

2월 28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용역사업 공모설명회를 갖고, 3월 20일까지 제안서와 응모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 한편 시는 기업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기업지원과 디자인지원팀 729-3850~2

인/사/동/정

장민호 수정구청장 취임

지난 2월 6일 제15대 수정구청장에 장민호(58)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취임했다.

장 구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35년간의 공직경험을 살려 살맛나는 수정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지역현안해법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68년 공직에 입문한 후 성남시에서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행정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치밀한 업무처리와 함께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시/정/알/림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관내 모든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를 대상으로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조사를 3.7(월)~3.30(금)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니 조사원의 사업체방문·면접 조사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획2팀 729-3223

자연장 제도 도입

기존의 묘지·납골시설이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친환경적 장사방법으로 수목장(자연장제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모집 중인 수목장 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중)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이므로 해당시설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불법 수목장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729-2330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질 체납하면 공매처분

수정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자 중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546명에 대해 재산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케 해 주·정차 질서 준수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통질서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과 주차관리팀 737-2290

성남시 지방채 조기상환 견실한 재정 이끌어

성남시는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경기도지역개발기금) 4천억원 중 3천억원과 이자 52억1천만원을 지난 1월 31일자로 조기상환했다.

시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당초 2003년, 2004년 차입액 각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예정과는 달리 지방채 원금 3천억원을 조기상환, 시 채무부담을 경감해 견실한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관리보상과 보상1팀 729-4460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죽~

◀증명민원 통합창구에 양방향 모니터 설치
▼저상버스

성남시는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편리함을 직접 느끼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추가로 확대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2005년도에 도입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대가 성남시내 주요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2월 15일에 2대 추가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22대에서 올 연말까지 5개 노선 총 34대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수정구청 시민과는 기존 관내에 설치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문인식에 의한 처리가 가능토록 업그레이드 하고, 2월 7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인식에 의해 발급받도록 했다.

#중원구에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호적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축하와 함께 출생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축하 엽서를 발송하고 있다. 2001년부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해오다 최근 3년간 9천9백여건을 발송했으며, 올해만 3백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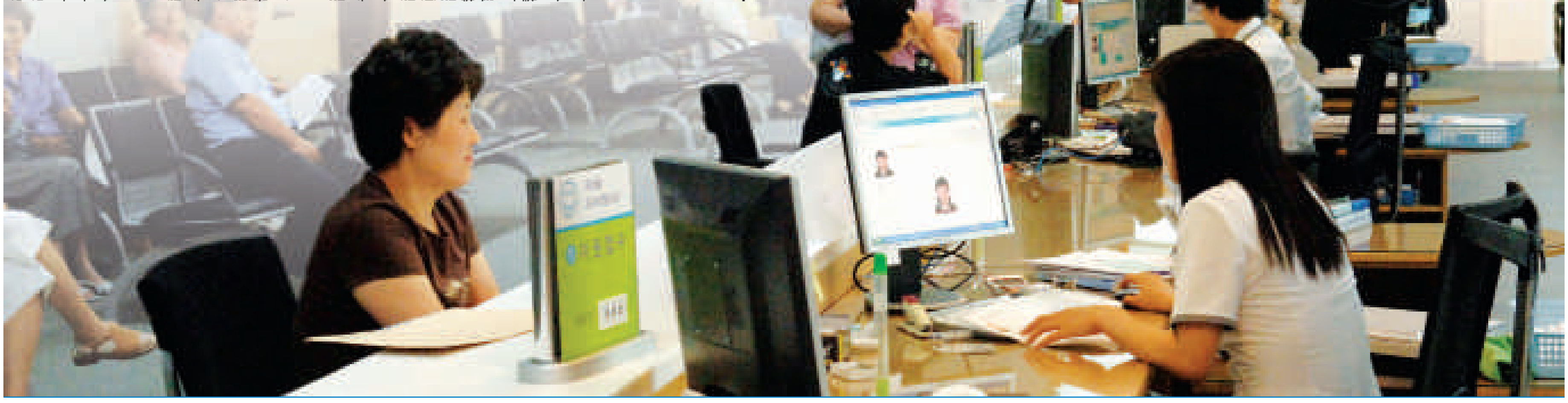
#분당구에서는 2월 1일부터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분야·토지분야·측량분야 등에 지정 상담자를 배치, 기업보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접수·조사·결과통지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월 5일부터 '증명민원 통합창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해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구청 홈페이지에 '호적상담실'을 개설해 기본적인 호적신고(출생·혼인·이혼·사망 등) 절차를 안내하고, 복잡한 호적에 대한 인터넷 문의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호적법규 및 선례 등을 참조 확인해 통채해 주고 있다. 하루 평균 20~30여건의 방문민원을 해소하고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호적민원의 만족을 위해 분당구에서는 출생신고자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선물로 보급하고 국기게양을 안내하고 있으며, 분당구에 본적을 둔 타지역 거주자가 외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 정리 후 출생 축하카드를 발송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처럼 한층 다양해진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만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 대민행정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교통행정과 버스운영팀 729-5040
▶수정구 시민과 민원팀 737-2040
▶중원구 시민과 호적팀 750-2062
▶분당구 시민과 지적·호적팀 710-2080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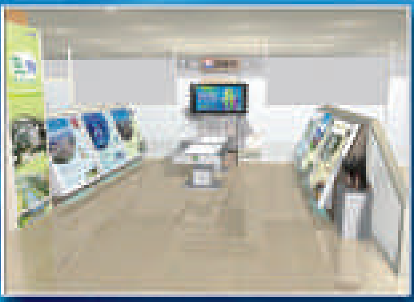
성남시가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운 이미지 홍보판을 궁내동 톨게이트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5곳에 설치, 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729-2711

● 옥외홍보탑-궁내동 톨게이트

● 인천국제공항-수하물인도장

● 김포공항-일반대합실


● 성남시 홍보관-김포공항 4층

● KTX 광명역사-맞이방 지하 1층

● 성남종합버스터미널-매표소옆

2010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 지원

올해 초등학교 1년생부터 우선 적용
식재료비 증가로 양질의 급식 제공

성남시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꿈나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늘려 2010년까지 전 학년이 무료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58개교 7만2천여명의 초등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올해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40억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어린이의 배고픔 해결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또한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을 19개교에서 시범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38개교로 확대,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학교급식 재료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해 양질의 급식으로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함께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729-3951

성남산업진흥재단

우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역의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과제당 사업비(1억원 이내)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3개 내외의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한 지 1년 경과(마감일 기준)한 성남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개발과제가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야 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첨단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향후 기술지원사업의 확대와 정착으로 시 전략산업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투자협력팀 782-3028

한편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임원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1세기 신경제를 선도할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제5회 국제경영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을 3.14(수)~6.27(수) 진행한다.

수료자에게는 재단이 시행하는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기업자금육성·신용보증지원, 경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돼 기업경영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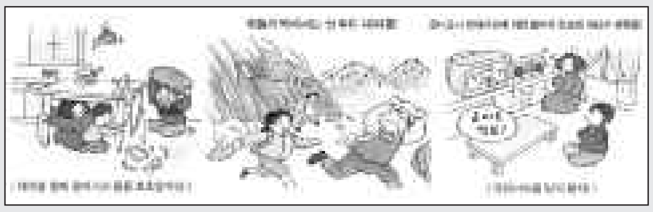
무역투자정보팀 782-3023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금지구역 : 운중 저수지, 시현 저수지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540번지 일원 및 시현1동 28번지 일원
▶벌　　칙 : 낚시행위를 한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지정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환경보전과 수질팀 729-2440~2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지난 1월 20일 평창지진(규모 4.8) 등 최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혀 활용하도록 합시다.

▶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한다.(테이블이 없을시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흔들림이 작을 때, 흔들리기 전·후 빠르게 전열기구·가스렌지 등을 끄고 불이 났을 경우 즉시 불을 끈다.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지진에 의해 문이 비뚤어져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니 비상시 대피방법을 생각해 둔다.

▶재난대책과 재해대책팀 729-4831

해빙기 안전점검 안내

동절기 한파의 영향으로 건물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시청으로 신고해 안전점검을 받읍시다. (점검기간 2007.2.12~3.11)

▶ 수시로 "틱틱" 하는 소리가 건물에서 들려온다.

▶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벽의 타일에 균열이 생긴다.

▶ 균열진행 방향의 끝점에 볼펜 등으로 표시해 날짜를 적어 놓고 수시로 균열을 확인한다.

▶ 주변의 대형빌딩·건축물등이 균열·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재난대책과 재난대책팀 729-4821 ▶수정구 737-2361 ▶중원구 750-2361 ▶분당구 710-2361

또 다른 시작! 우리는 努人(노인)

"…우리는 이제 노인이 '늙을 로자의 노인(老人)' 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힘쓸 로, 부지런할 로의 노인(努人)' 임을 밝히며, '노인도 일할 수 있다' 는 것을 500만 노인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며…"

– 2007 전국 일하는 노인전진대회 일하는 노인(努人)선언문 中 –

● 성남시니어클럽 개관

예전에는 단순히 집안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으나, 다양한 사회활동의 경험을 가진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환경 급변으로 이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가능성을 살린 역할을 찾아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연령 제한과 낮은 사회 인지도로 인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6070세대의 현주소다.

이런 어르신에게 '일'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실행하기 위해 2월 7일 '성남시니어클럽'(관장 정정순)을 개관했다.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가 성남시·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위탁·운영하는 이곳은 기존 수정노인복지회관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3년여의 다양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현재 성남시니어클럽에서는 국산콩 건강두부사업단과 올패션 사업단, 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 사업단 등에 1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조사연구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규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 우선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고, 해당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발되면 바로 취업교육 및 사업단 투입이 가능하다.

부모님 부양과 자녀 양육만을 위해 살다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6070세대에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동반자로, 앞으로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4050세대에게는 체계적인 노후 준비와 제2 인생설계의 우수한 역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될 이곳 성남시니어클럽.

베이비시터 사업단 참여자 모집

▶55세 이상 시 거주 여성

▶수정구보건소 뒤 산성경로당 1층

▶성남시니어클럽 735–6333

늙을 '老' 자가 아닌 힘쓸 '努' 자의 노인(努人)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줄 이 클럽에 큰 기대를 해본다.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소비자 News

가정원예대학
〈분재·난·국화〉 수강신청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는 가정원예 대학을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운영한다.

가정의 주거공간을 이용한 꽃재배로 생활공간을 보다 기능적이고 정서적으로 만들어 줄 이번 교육과정은 분재 난 국화 등 3개 분야, 3개 과정(초급, 중급, 고급) 150명(연인원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강을 원하면 3월 5일부터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분당구 이매동 96-2)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재료비 2만원.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729-5941/ 43/ 46

소비자 Q&A

사진촬영 후 원판 돌려받을 수 있나?

Q 학기 초라서 각종 증명사진은 물론 졸업, 입학 등 기념사진 촬영이 많은 시기이다. 그런 만큼 사진관련 소비자 분쟁도 많아지는 때다. 분당에 사는 정 모 씨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소비자는 사진이 맘에 들어서 필름을 달라고 했더니 사진관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소비자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전혀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A 위와 같은 사례는 사진관 또는 사진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각종 증명사진이나 기념사진(백일·돌·입학·졸업·회갑 등)을 촬영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사진관과 소비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진 촬영 전에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관은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사진 원판(광학방식의 필름 원판, 디지털 방식의 파일 포함)을 인도해 줘야 한다.

다만, 디지털 방식 사진 파일의 경우 인도받는 데 필요한 CD나 공 디스켓 등 재료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저작권은 양도되는 게 아니므로 여전히 사진관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취업 News

■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대 상**: 성남시민 중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임업훈련기관에서 훈련교육을 이수한 자·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모집인원**: 근로자 30명, 조사단 5명

• **접수기간**: 2.28(수)까지

녹지공원과 산림팀 729-2522

■ 노동부 지원 무료취업훈련생 모집

여성가장에 해당되는 실업자 및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미혼여성 등 취업에 취약한 여성에게 무료 취업훈련을 지원합니다.

• 여성가장훈련: 3.16(금)까지 방문접수
분식 및 단체급식조리사 과정(3.12~7.4)

• 실업자재취직훈련: 3.5(월)까지 방문접수
전산세무회계사(3.5~6.15)

• 공 통: 교통비 지급, 여성가장 대상 수당지급(최대 35만원), 수료 후 6개월간 취업지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718-6696 www.snw.or.kr

■ 경기 재취업지원사업 구직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내 실직자(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취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밀착상담 및 능력회복, 취업연계 및 알선, 사후관리

• 접수기간: 2.20~3.2(인원 250명)

• 신청자격: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 실직자(고용보험 기준임)

• 상담장소: 중원구 성남동 4103 금호빌딩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729-2133 www.intoin.or.kr

■ 2007 상반기 열린 일자리 한마당

• 일 시: 3.12(월) 10:00~17:00

• 장 소: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개최규모: 참가기업 100여개, 취업희망자 1만여명

• 채 용 관: 대기업·중견·외국계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부대행사: 취업컨설팅, HR컨퍼런스,
영어면접, 기타 관련 행사

• 온라인 채용박람회 3.16(금)까지 병행 운영
http://www.openjob.or.kr

• 접 수 처: 경기도 취업정보센터
249–4648~9, FAX 249–2448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의 정 구 호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의 정 방 향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의회**
- 지역발전 선도하는 **선진의회**
-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007년도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기 및 주요 의사일정

- **회기** : 2. 23(금)~3. 8(목) 【14일간】
- **주요 의사일정**

구 분	운영일수	주요의사일정	비 고
계	14일	실제 운영일수 : 9일	휴회 5일
본회의	2일	개회, 폐회 : 2일	• 토요휴무 : 2일(2.24, 3.3) • 일요일 : 2일(2.25, 3.4) • 3. 1절 : 1일(3. 1)상임
상임위원회	6일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 1일 • 시정업무계획 청취 : 5일	
시정질문	1일	시정질문 및 답변	

세부 의사일정

일 시	개 요: 본 회 의	개 요: 상임위원회	비 고
【1일차】 2. 23(금) 10:00	• 개회식 　• 개회사/시장 인사 • 제1차 본회의 　•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 의결 　• 성남시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장
【2일차】 2. 24(토)	휴 회 (토요휴무)		
【3일차】 2. 25(일)	휴 회 (일요일)		
【4일차】 2. 26(월)	휴 회	• 상임위원회 운영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각 상임 위원회실
【5일차】 2. 27(화) 10:00, 11:00	휴 회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 조례안 심사 　• 2007년 시정업무 청취(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14:00		• 상임위원회 운영 　• 2007년 시정업무 청취	각 상임 위원회실
【6일차】 2. 28(수)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운영 　• 2007년 시정업무 청취	각 상임 위원회실
【7일차】 3. 1(목)	휴 회 (삼일절)		
【8일차】 3. 2(금)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운영 　• 2007년 시정업무 청취	각 상임 위원회실
【9일차】 3. 3(토)	휴 회 (토요휴무)		
【10일차】 3. 4(일)	휴 회 (일요일)		
【11일차】 3. 5(월)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운영 　• 2007년 시정업무 청취	각 상임 위원회실
【12일차】 3. 6(화)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운영 　• 2007년 시정업무 청취	각 상임 위원회실
【13일차】 3. 7(수) 10:00	• 제2차 본회의 　• 시정질문 및 답변		본회의장
【14일차】 3. 8(목) 11:00	• 제3차 본회의 　•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 폐 회		본회의장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정활동 이모저모를 찾아서

설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 방문 · 격려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 방문 「임마누엘의 집」

관내 3개 경찰서 및 소방서 위문 「수정경찰서」

성남시의회 의장 이수영은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2007년 2월 14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불우시설인 사회복지시설(임마누엘의집 등 6개소) 및 관내 3개 경찰서, 소방소를 방문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과 과일 등을 전달하였다.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2007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2007년 1월 31일(수) 시의회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우봉제)를 비롯한 회원들이 방문하여 2007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으로 전달하고 환담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열어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2007년 새해 들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의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기획연재 / 성남 이야기(1)

판교(板橋) - 널다리, 이름의 역사

이번 호부터 성남, 특히 신도시로 편입된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성남 이야기' 코너를 신설,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판교톨게이트', '판교로또'(판교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등의 이름으로 판교라는 고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판교 톨게이트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고도 경제 발전 관문으로서, 또 판교로또로 불리는 첨단 신도시의 등장으로 판교는 우리 눈앞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판교라는 이름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현실 가치 앞에 드러난 것이 우연일까.

판교는 원래 널빤지로 만든 다리라는 뜻의 이름 '널다리'에서 기인한다. 널다리는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운중천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하룻길에 한양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양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숙소가 되고 또 반대로 한양을 출발해 멀리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 쉼터가 되었던 곳이 바로 '널다리' 혹은 '너더리'라고 불렀던 판교다. 그래서 판교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고령자들은 주막과 장터, 객사가 즐비하여 꽤나 흥청거리던 모습을 회상한다.

널다리를 건너게 되던 낙생역(樂生驛)이 있다. 역은 공무로 지방에 출장을 떠나는 관리들에게 인마를 제공하던 장소이다. 또 숙박장소로서 판교원(板橋院)이 있었다. 지금은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지목하기 어렵지만 대략 낙생고등학교 앞쪽에 역이 위치하였고 지금은 신도시 개발 공사로 사라진 판교동 일원으로 원과 저잣거리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낙생고등학교 부근을 역 터로 지목하는 이유는 낙생면사무소가 바로 그 일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판교리 191번지에 위치했던 낙생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최근까지 존속하였으며 낙생농협이 들어서면서 그 유지마저 없어졌다.

과거 이 일대에 역과 원이 있었던 사실이라든지 실제로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멸실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역이 있던 공해(관가의 건물)를 다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낙생고언저리가 가장 유력한 역 터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판교는 과거 판교가 지나왔던 시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말 우연히도 교통의 축으로서 또 세인들 관심의 대상 지역으로서 판교는 과거와 현재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판교를 꿈꾸는 사람들과 판교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우연이 없다. 어떠한 연관성이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모습은 연결고리를 갖고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고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 과거를 바라보는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과거의 어떤 현상이 완전히 단절돼 현재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세워질 판교신도시가 단순히 지나쳐버릴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오롯이 살아있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도시에 살게 될 사람 모두가 지역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충배·토지박물관 학예사 738-8995

청소년 News

지역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중원구 13개 센터 관계자 토론회 가져

중원구에서는 2월 13일 관내 13개 지역 아동센터 시설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급식은 물론 교육·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의 장들은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아동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즐겁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지역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센터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2월 15일에는 중원구 관내 125개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2007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육사업 설명회를 가져 호응을 얻었다.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750-2260

기획연재

은비·금비네 입양일기(2)

♥ 지난 호부터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를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족의 입양일기가 이어집니다. 은비는 2003년 8월 생후 100일만에, 금비는 2004년 4월 생후 2주 만에 김태원·엄양순 부부 가정에 연년생으로 입양돼 사이좋은 자매로 크고 있습니다. ♥

<2007년 1월 10일>

은비와 금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금비에 대한 은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집에서는 둘이 싸움도 자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사이좋게 논다. 짐작컨대 체면을 많이 생각하는 은비가 동생과 다투는 것은 자기 이미지 관리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어린이집 수첩에 적으며 은비와 금비가 병원놀이를 하며 한참을 놀더란다. 집에서 하는 놀이건만 그것도 부족해 어린이집에 가서까지 놀았나보다.

둘이 쪽이 너무 잘 맞아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쩌나 조금은 걱정이 된다. 집에 와서도 둘이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고 킬킬거리며 한참을 논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그냥 두었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또 병원놀이를 했단다. 웬일이지? 우리 은비와 금비 둘 다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 봐? 아무튼 요즘은 둘이 너무 잘 놀아서 가끔씩 소외감도 느낀다.

<2007년 2월 1일>

은비와 금비를 8개월 간격으로 입양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세 번 정도 아이들과 껴안고 울었다. 저녁 무렵, 둘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둘 다 안아달라고 울며 매달릴 때 "엄마 너무 힘들어~" 하면서 같이 울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12시간도 잘 수 있다.

또 둘이 노는 사이 화장실 문을 닫고 머리도 감고, 아주 잠깐씩 TV 틀어주고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기도 한다.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뜬다면 은비 아빠에게 자식이 둘 보다는 셋이 낫지 않을까?

요즈은 들어 은비가 아기를 많이 예뻐한다. 금비와 싸울 때도 있지만 동생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른다. 며칠 전 금비가 은비를 때리고는 잠이 들어서 내가 "은비야, 금비 밉지?" 했더니 은비가 "그래도 귀여워" 한다. 그래서 남동생 있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단다. 엄마가 너무 힘든데 은비가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줄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캐나다 가면(캐나다 이민 계획 중) 은비가 학교 들어갈 때(은비에게 입양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생을 데려오기로 했다. 어느 날 작아서 안 입는 옷을 조카한테 주려고 하니까 남자동생 오면 줘야 한다고 주지 말란다. 은비 생각이 너무 깊어서(?) 한참을 웃었다.

나는 지금도 반신반의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식이 많은 것이 좋은데, 또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1, 2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로 생각될까?

<다음호에 계속>

- 은비·금비 엄마 -

* 자료제공 :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
747-5453, 5036(24시간 상담)
국내입양 미혼모(상담내용은 비밀)

e SPECIAL 열린 교육, 함께하는 교육

도시형 대안학교 - 수정청소년수련관 '해오름학교'

학교 밖 아이들의 배움터 & 쉼터

이제 3월이다. 이때쯤이면 새 학기 새 친구를 맞을 준비로 가슴 설레는 아이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떤 이유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교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많다. 이른바 '학교 밖 아이들'이 그들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정청소년수련관(수정구 신흥2동)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지속적 배움을 주고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시형 대안학교 '해오름학교'를 2002년부터 5년여 운영해오고 있다.

2년4학기제로 시 거주 14~18세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5일 인성교육 외 중·고교 과정 1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이곳에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진(29) 선생님은 실습생으로 아이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젠 이곳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중학과정만 신설했지만 중학과정 후 고등학교졸업능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에 들어간 아이도 생겼어요."

'대안학교' 하면 떠올리던 선입견(문제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아예 초등과정부터 대안교육으로 공부시키려는 부모도 있다. 획일적이고 단순전달방식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성·자율성·창의성에 무게를 둔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대안학교가 생겨나게 되었던 만큼 꾸준한 발달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분당의 도시형 대안학교 '이우학교'도 첫 서울대 합격자 2명을 배출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이 이곳 수련관에 문의해 오기도 하고, 제도권의 틀이 힘겨워 스스로 학교를 뛰쳐나오거나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돼 이곳의 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 모(20·해오름학교 후 동원대 입학)군은 단순히 재미없고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방황하던 사춘기, 우연히 친구 따라 이곳을 찾게 되었단다. "그러나 해오름을 다니면서 꿈이 생겼어요.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가고 싶은 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해오름이 있어서 길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만 한다면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 외에 인터넷방송국 등 수련관의 시설들을 이용한 미디어교육, 퍼포먼스, 밴드활동, 과학실험, 미술심리 특성화교육 등도 받을 수 있어 다른 시설과 비교해 교육환경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거쳐야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가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아무리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다 해도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소외감으로 정서적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수정청소년 수련관에서 누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 해오름학교에서는 2007년도 신입생을 3월 31일(토)까지 모집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팀 740-5260~4

청소년수련관 3월 행사

청소년기자단 선발

- 일시: 3. 24(토) 오후 1시
- 장소: 수정청소년수련관
- 대상: 관내 거주 또는 재학중인 16~19세 청소년
- 활동: 성남시청소년기자로 활동, 각종 영상제작·취재 활동 등
- 접수: 3. 12~21
- 방법: 홈페이지(www.chamtv.com)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 문의: 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2007 토요문화마당 개최

- 기간: 3~12월(연중 총27회 운영)
-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시민
- 일시·장소: 매월 2·4주 토요일 현장체험(희망대공원 13:00~17:00) 매월 3주토요일(해당학교)
- 접수: 희망대공원-행사당일 12시부터 현장접수
- 문의: 수정청소년수련관 740-5200

제7회 가족음악회

- 일시: 3. 17(토) 오후 5시
- 대상: 청소년, 지역주민, 온가족
- 장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
- 입장료: 무료
- 문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팀 783-4300 (교503)

2007년 제1차 체험글쓰기

- 일시: 3. 24(토)
- 장소: 한국민속촌
- 대상: 초등학생 40명
- 내용: 한국민속촌 견학(오전) 글쓰기(오후)
- 참가비: 1만원(준비물-도시락)
- 접수: 3. 6(화)부터 방문접수
- 문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팀 783-4300 (교304)

주말 미디어 프로젝트 "찰칵! 눈으로 말해요"

- 일시: 3~12월(매월 3·5주 토요일 오후 2~5시)
- 대상: 수련관 방문 시민
- 장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층 열린마당
- 내용: 포토에세이-폴라로이드, 테마가 있는 가족 T-셔츠 만들기, 나도 TV스타-뉴스만들기
- 접수: 당일 선착순
- 문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특화팀 783-4300(교501~2, 504, 508) www.sangsangtv.com

환경모임 | 분당어린이식물연구회

엄마·아빠와 함께 '풀 공부'하러 가요!

"식물만 다루는 모임도 아니고, 연구만 하는 딱딱한 분위기는 더욱 아니에요. 그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을 자연생태계로 재현, 습지보호와 어린이 생태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www.ccoguide.or.kr) 고영호(여) 이사. 그가 분당으로 이사오면서 2004년 9월 발족한 분당지회(분당어린이식물연구회)가 올해 3기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당어린이식물연구회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월 1회 야외수업과 실내수업을 통해 '풀'을 공부한다. 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풀꽃교실' 강좌의 이름으로 자연에 대한 예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식물과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식물을 알아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슬라이드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야외 수업은 성남을 둘러싸고 있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을 다니며 숲을 느낌과 동시에 자연놀이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작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진행된 율동습지 생태학교는 회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아버지들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다. 가족과 함께 기꺼이 도시락을 챙겨 나설 수 있는 그들의 매력. 그것이야말로 자연에서의 쉼도 누리고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도 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의 산물이 아닐까.

분당 1기 회원으로 2004년부터 함께해온 황종금(여·사진 뒷줄 오른쪽) 선생님은 집에서 가까운 불곡산을 자주 오르는데 "야생화로 봄을 시작해 여름의 무성함과 가을의 단풍을 거쳐 나뭇잎이 없어서 새를 관찰하기가 좋은 겨울산도 느낀다"며 아이들이 먼저 계절감각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실천과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을 보면 결과중심적인 한마디보다 해를 거듭하는 과정속에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1년 동안 걸어온 흔적들을 모아 지난 1월 24일(토)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조심스레 말려 표본한 것, 천연염색, 약초 향주머니 등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를 보여준다. 이 연구회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3월초까지 회원등록을 받는다. 초록바람이 많이 퍼져나가길 바란다.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분당지회 016-9872-6776

김진아 기자 jinahflower@hanmail.net

작은 학교

강사 한동욱 박사와 중앙공원 둘러보기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행복한 학교생활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문제없이 학업을 잘 성취하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예비 초등학생을 둔 '새내기 학부모'는 학생들 못지않게 분주하다.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이가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지만 부모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다반사다.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챙겨볼 것을 정리해본다.

건강상태·바른 생활습관 점검

입학과 개학을 앞둔 아이의 부모들은 '건강 통찰력'을 갖고 아이를 관찰해야 한다.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는 아닌지, 비염·시력 이상·중이염 등 신체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방접종은 빠뜨리지 않았는지, 치아는 잘 자라고 있는지, 자세는 바른지, 눈은 나빠지지 않았는지 등이다. 특히 시력이 나빠 칠판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꼭 안과나 안경원을 찾아 시력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을 점검, 규칙적인 생활로 바꿔줘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한다. 충분한 수면은 아이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준다. 또 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한다. 혼자서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또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한다.

입학 준비물

입학 후 첫 한 달간은 다른 교과서 없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 한 권을 공부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배운다. 이 후에는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수학과 수학 익힘,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을 배운다.

늘 학교준비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잘 챙겨가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쓸 학용품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이 가장 좋다. 책가방은 가벼운 것, 연필은 심이 약간 무르고 굵은 편인 2B연필을 3~4자루, 크레파스는 24색 정도, 색연필 12색 정도, 필통은 헝겊으로 된 것이 적당하다. 모든 학용품에는 하나하나 아이의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한다.

학교는 재미있는 곳 알게 하기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은 태어나서 겪는 가장 큰 변화다. 학교는 즐거운 곳,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 관심과 칭찬은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힘이다. 창의력을 꺾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삼가야한다. 꾸지람, 잔소리, 소극적 태도는 실패를 유발하고 칭찬, 격려, 적극적 태도는 먼 미래의 성공을 약속한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기 때문이다.

황연미 기자 hwang9657@hanmail.net

청솔복지관 새 학기 사회교육프로그램 값싸고! 내용 좋고!

7살 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36)는 요즘 하루의 절반을 집 근처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낸다. 초등학생 아이는 수학과 피아노 그리고 컴퓨터를 듣고, 네 살배기 둘째도 이곳에 있는 청솔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이다.

세 개의 강좌를 듣지만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에 9만원 정도. 최근 들어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저렴한 복지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수학, 컴퓨터, 주산교실 등 학습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예능 영역과 발표력 향상·동화 구연·글쓰기·창의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복합적으로 운영된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4-6333

www.chungsol.or.kr

장수 위한 한의학 양생 Ⅲ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

♠마음양생=텅 빈 몸과 마음

우리가 건강하려면 먼저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누가 건강하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욕심과 교만함으로 몸의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한다. 몸과 마음의 관리가 소중하다는 가치관이 내 의식 속에 자리잡혀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염담허무(恬憺虛無)라 하여 건강을 위해 청정 담담하게 살 것을 강조한다. 욕심을 많이 내면 생명의 원기(元氣)가 소모되고 몸을 긴장시켜 기혈의 순환을 저해하며, 성내는 마음(火)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와 칼을 휘두르며 우리의 생명성을 많이 해친다.

우주는 본래 텅 비어 있으니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걸림 없는 자유로움으로 몸의 안락을 얻을 수 있다.

웃음(미소)은 우리 몸을 생기있고 활기차게 만든다. 기분이 좋으면 긴장되어 있는 몸의 기운이 풀리며(舒暢氣緩)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과 오장육부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마음이 즐거워 웃기도 하지만 또 일단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니,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박장대소하며 웃고, 늘 입가에 미소를 짓도록 하면 몸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호흡양생=하늘의 기운(天氣)으로 내 몸의 기운을 채운다

동의보감에서는 "날숨은 하늘의 뿌리와 닿아 있고 들숨은 땅의 뿌리와 닿아 있다. 사람의 몸은 텅 비어있고 그 안에서 기(氣)만 움직일 뿐이니, 호흡을 다스릴 수 있으면(調氣法)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호흡의 가치를 강조했다.

바른 호흡법을 사용해 몸으로 호흡을 의식하여 온몸으로 숨을 쉬는 듯 해본다. 그러면 팽팽한 풍선처럼 우리 몸에 기가 충만해지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음의 안정에 주력한다. 호흡은 생명의 율동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 혼연일체로 드러나게 하니, 호흡의 조절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의 조절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민상준 · 분당구보건소 공중보건의

＊다음호엔 '음식양생(땅의 기운(地氣)으로 내 몸을 기른다)'이 게재됩니다.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월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명	대상	내 용	장소/강사	비고
3월중 월-금요일 10:00~17:00	가족상담실 운영	성남시민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 전화·면접·사이버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해석 상담	센터 상담실 / 가족상담전문가	사전예약제
3.9(금) 17:00~19:00	부모역할 제대로 하기	삼호 F&G 직원	부모역할 이해 및 자녀와 통하는 방법 습득하기	삼호 F&G / 송말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선임연구원)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개별신청자 받지않음.
3.23(금) 19:30~21:30	사랑은 마술을 타고~	2인이상 20가족	마술공연 및 활동을 통한 가족사랑 표현하기	센터 시청각실 / 추후공지	

프로그램 신청·문의 755-9327

＊가족상담실 운영

● 전화상담 755-9329 ● 사이버상담 snfc.familynet.or.kr ● 면접상담·심리검사·집단상담 [사전예약] 755-9327

보건 News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실시

3개구 보건소에서는 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관리 내용은 임신초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임신성 당뇨검사(24~28주), 임산부 건강검진은 물론 철분제 지급(20주~분만시), 출산준비 교육(20~32주), 산후관리를 실시한다.

➔ **보건소 임산부실** | 수정구 729-5174 중원구 729-5276, 분당구 729-5376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이전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 상담기관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가 수진1동 2193번지 금성빌딩 4층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다.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알코올 예방, 알코올중독자 관리, 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을 지원한다.

➔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171, 알코올상담센터 751-2768~9 www.snac.or.kr

어르신 건강 코디 모집

관내 중년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 가정을 방문,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줄 '제2기 어르신 건강 코디'를 선착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시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의 일환인 이 교육과정은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6주간)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노년기 질환, 운동건강체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중원구보건소** | 건강증진팀 729-5282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희망자에게 개별상담·약물요법을 제공하는 등 금연실천을 적극 지원, 주민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등록하면 6개월간 전화상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 확인 및 추후관리를 진행한다. 전화예약 후 방문상담할 수 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수정구 729-5183 중원구 729-5287 분당구 729-5383~4

황사발생 확인

황사발생은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국번 없이 131(지역번호+131번)·기상청(02-2181-0695)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재난대책과 729-4833 소방방재청 www.nema.go.kr '안전길잡이'

수정노인복지회관

♠ 뇌졸중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성남시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재활치료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뇌졸중 장애인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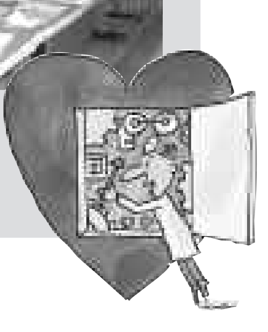
- **모집대상** : 뇌졸중 장애인(장애판정을 받으신 분)
- **모집기간** : 3.25까지
- **프로그램** : 포크댄스, 핸드벨, 치료연극 등

＊**수정노인복지회관** 731-3393~4

♠ 부설 재활전문치료센터(수정복지의원) 안내

- **진료과목** : 뇌졸중 클리닉(재활프로그램 병행), 장애진단, 재활운동, 작업치료, 보장구처방
- **진료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 4시 30분(토 오전 12시까지)
- **초　　진** : 의료보험카드 지참

＊**수정복지의원** 731-3435



대한민국 공채 1기 공무원 신현갑 분당구청장

주민을 위한 무한책임… 40여년간 최선 다해

대한민국 공무원 공채 제1기인 신현갑 분당구청장을 만나보았다. 올해 공무원 생활 40년이 넘은 신 구청장이 공무원에 처음으로 임용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만 18세. 그 당시엔 만 18세가 넘으면 공무원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

왜 공무원이 되었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말한다. 생활이 어려워 공무원에 응시를 했다고. 그때만 해도 면서기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작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잘 나오는 안정된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고향인 논산에서 공무원 생활 첫발을 내디딘 신 구청장은 비록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되었지만 당찬 열정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좀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경기도에 지원했고 1974년 10월 4일 성남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직자들이 예전엔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개성도 강하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건 '봉사'라고 한다. 스스로 택한 공직생활이었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다. 늘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생활신조라는 그는 만약에 공무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 외엔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공직자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다.

"주민들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구를 운영하는지요?"

"분당구는 잘 짜여진 동네고 계획화된 도시라 청소, 교통, 주민의 여가활동과 편의시설확충에 많이 고민을 했지요.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 또 살고 싶은 곳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주말이면 혼자 분당 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듣고 더 나아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지 살핀다고 한다.

취미로는 가끔씩 등산과 바둑을 즐기는 편인데 바둑 실력은 아마 1단이다. 가정에선 어떤 아버지며 가장이냐고 물었더니 말하나마나 '빵점짜리 아버지요 가장'이라며 가족이 묵묵히 지켜봐준 것이 고마울 뿐이라고 한다.

평생 한 길로만 달려온 그가 후배를 위해 한마디를 던진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퇴직 후 신 구청장은 인도여행을 구상 중이다. 하필이면 인도냐고 했더니,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 나이 들면 주변정리를 하며 마음을 비우는 인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느껴보기 위해서란다. 40년이 넘게 꿋꿋하게 공직을 지켜온 신 구청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제7대 신임 성남예총 이영식 회장

"100만 거대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발전 위해 최선 다할 터"

"중앙 예술인과의 교류로 시민에게 질 높은 볼거리 제공"

"성남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으로 성남예총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예술총연합회 성남시지부회장(성남예총) 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식 제7대 신임 회장은 1991년부터 성남예총 연예지부장으로,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6년을 성남예총과 함께해왔다.

이 신임회장은 성남예총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팀과 정책팀을 운영하고, 중앙 예술인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예총은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9개 지부에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오랫동안 성남예총의 연예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지부에 대한 관심은 적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앞으로 각 지부에 대해 많이 공부하여, 회원 단체간의 돈독한 유대와 회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독창적이고 폭 넓은 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각 지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각 지부의 발전을 위해서 장르별 특화사업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성남예총의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거론돼 온 분당거주 유명 예술인들의 성남예총 영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회장은 "그동안에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유명예술인의 영입과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 나름대로 프로포즈는 해 왔다.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영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운영팀과 기획팀이 운영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명 예술인들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이 성남예총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일부 지부의 지부장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인 만큼 예총회장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성남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집니다"라고 말하는 이 회장은 1974년부터 성남에 살고 있었지만 중앙의 연예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991년 성남예총의 권유로 연예지부를 맡기로 결정하면서의 첫 다짐이 "내가 사는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자"였다고 한다.

이제 앞으로 4년간 성남예총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서의 다짐 역시 "내가 사는 지역 성남예총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라고.

현재 수정구 양지동에 살고 있는 이영식 회장은 부인 김미경 씨와 슬하에 3남 3녀를 두고 있으며 가수 현사경 씨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의 유관 단체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회장은 "이런 계획들은 결코 회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지부의 지부장을 비롯해 회원 여러분과 각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끝인사를 건넸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중원구 상대원1동

조손(祖孫) 가정 지원 등 주민생활지원 상담 활발

마을을 표현하는 단어 '동네'는 집을 찾아가는 안식처로 친근하고 포근하면서 편안한 곳, 사랑이 넘쳐나는 곳을 의미한다.

성남시에서는 최근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좀 더 가까이서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원구 상대원1동에서도 전동억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중심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동네 취약계층의 진로·교육 상담은 물론 주거환경개선, 가정문제, 미래에 대한 아동교육, 청소년문제, 노인복지, 의료보건 상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상담을 통해 조손(祖孫) 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키로 결정, 1개 단체가 1개 조손가정을 돕는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유관단체(10개 기관 후원자 20명)와 결연대상자(조손가정 24명)를 연결, 한달에 한 번 가정 방문을 통해 말벗도 되어 주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교환한다.

결연대상인 허정호(19)·허진주(16) 오누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부모보다 힘들게 키워주신 할머니의 양육비 해결과 건강상담을 고마워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열심히 공부해 동네에 자랑스런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웃의 안타까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상담해주는 사회복지사 송원숙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김살없이 자라는 아이들과 예절교육을 시키시는 조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따뜻한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온다. 이런 이웃이 있기에 훈훈하고 건강한 우리 마을, 마음이 통해 가족 같은 상대원1동이 좋다.

상대원1동 750-2932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삼영전자(주) 해오름봉사단

"전 직원 참여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중원구 상대원공단에는 39년 전통을 자랑하는 삼영전자(주)가 있다. 콘덴서 제조업체로 임직원은 1천여명, 성남지역의 경제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1992년부터 '사랑의 나눔회'라는 이름으로 십시일반 기금을 조성, 연 2회(추석, 설) 미인가 복지시설 및 독거어르신들을 도와왔는데 2006년 10월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李성호(50·사진 아래·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단장 이하 남녀직원 48명은 2006년 10월 해오름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60명의 해오름봉사단은 월 회비 5천원씩 모은 기금에 부족한 부분은 사내 사랑의나눔회에서 보태고 있어 실상 이들의 활동에는 전 직원의 손길이 담겨있다.

올해 설을 앞두고 지난 2월 10일에는 상대원 소재 장애인공동체 등 사회복지시설 10곳을 방문해 쌀과 라면을 전달했고, 평소에도 환경정화 운동, 김치담그기, 장애우 가족 식사대접 등을 해왔다. 따뜻한 봄이 오면 매주 토요일 남한산성 입구에서 '사랑의 손봉사단'과 합심해 유리시를 찾는 어르신과 관내 어르신을 위해 무료로 국수로 대접해드릴 계획이다.

임수진(29·여·사진 앞줄 왼쪽) 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도 해보지 못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고, 추운 날씨에 환경을 정소하느라 힘들었지만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활짝 웃는다.

李 단장은 모두 직장인들이라 토·일요일이나 퇴근시간 후에 봉사해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바람이 있다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큰 봉사단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힘주어 말한다.

해오름봉사단은 2005년 성남시·상공회의소 주관 봉사대상과 2006년에는 성남시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에서 성남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지금 우리 동네에선

수정구 신흥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참마음 운동'이란 이름으로 2월 9일 생활이 어려운 173가구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737-2731

중원구 은행2동=은행2동 주관으로 유관단체와 '책마을 어린이도서관'은 1월 31일 도서지원 협약식을 갖고 매월 정기적으로 도서를 지원, 도서관을 육성키로 했다. 750-2911

중원구 상대원2동=매월 급여 중 만원 이하 금액을 적립하는 '사랑의 우수리운동'으로 모은 70여만원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수급자 가정의 아이 9명에게 입학용품 일체를 마련해줬다. 750-2951

중원구 총무과=구·동 홈페이지에 지역주민과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랑스런 통장' 알리기 배너창을 개설, 운영한다. 750-2330

분당구 정자2동=한솔마을 주공7단지 주민들이 1년 동안 폐휴지·재활용품을 판매해 마련한 600여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2월 9일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710-2752

분당구 이매1동=2월 5일부터 10주간 동사무소가 구입한 신간도서를 주민들이 돌려 읽는 '독서이어달리기'가 시작했다. 10명이 한조가 돼 일주일간 책을 읽고 다음 주자에게 서평과 함께 전달하는 독서방법으로 현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710-2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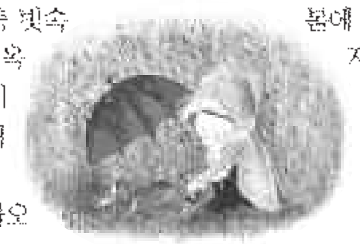
옥탑방의 봄비

대학생이 되어 난생 처음 시골땅을 밟았다는 기쁨도 잠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고른 집은 허름한 4층 건물의 옥상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보증금 30만원에 4만원의 월세로 먼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와 공동부담으로 자리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무허가 여인숙이 되어 하룻밤도 떠돌이나그네를 치르지 않고 잠을 청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본시 위로 두 형님을 모시고 지내며 꼬질이엔 이골이 났던 까닭에 여럿이 뒹굴며 지내는 일은 별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주인을 알 수 없는 칫솔들이 무질서하게 굴러다녔고 쌀이나 반찬 등 부식비가 유난히 많이 들었고 치약 하나를 꺼내둬도 수명이 너무 짧았다. 그래도 양심껏 하나둘씩 살림거리를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대로 지낼 만했다.

그런데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게 바로 비였다. 비가 많이 오면 어디서 누전이 되는지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지기 일쑤였고 부엌에는 심심찮게 비가 샜다. 다행히 방은 사정이 좀 나았지만 사우나 천장처럼 물방울이 천장에 이슬이슬하게 맺혀서 연신 수건으로 닦아내야만 했다. 그런 날은 감기 걸리기에 딱 이어서 연탄불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무더운 여름날 밤 내리는 빗속에선 비누 한 장 달랑 들고 밖에 나가서 샤워로 대신하던 일, 화장실 가기 귀찮아 넓은 옥상의 아무데서나 대충 빗속에 소변을 보고 말았던 일 등 나름대로 옥탑방만의 편리와 재미가 있었지만, 봄비는 왠지 쓸쓸하고 퀴퀴한 홀아비들 냄새만 증폭시키는 통에 유쾌하지 않았다.



어쩌다 누가 막걸리에 파전이라도 사오면 초라한 청춘들이 둘러앉아 바로 머리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왈츠를 감상하며 그 녹녹함을 달랬다. 하지만 술이 깬 다음날까지 비가 내리면 진심히 떨쳤던 초라한 감정이 두 배로 밀려들어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는 비가 새지 않는 아늑한 내 집이 있어 비오는 날은 편안히 아파트 단지의 젖은 풍경 속에 시선을 던진다. 머는 머리 위에 빗방울 붓는 소리 없고 천장에 맺히는 빗방울 닦을 일도 없지만, 다가오는 봄에 이 도시 어딘가에선 옥탑방을 떠나지 못하는 청춘들이 소주 한 잔에 애환을 달랠지 모를 일이다. 제발 황사라도 없어서 옥탑방 봄비의 낭만이라도 지켜주면 좋으련만.

서정동·분당구 서현동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겨울의 끝자락인 1988년 초봄!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새로운 계절, 봄을 느껴보자는 이유로 남한산성 산행 길에 나섰다.

제법 봄기운이 피부로 느껴지긴 했지만 응달인 곳과 낙엽이 덮인 곳은 아직 얼어 있었다. 깊은 곳까진 봄이 이르지 않은 산속이지만 여기저기 몽방몽방 새순을 틔우려는 나무며 꽃이 얼마나 작고 가녀리고 귀여운지 그 모양이 꼭 봄을 닮았다.

밤새 내린 촉촉한 봄비를 머금은 나무들은 금방이라도 쑥쑥 자랄 듯이 싱싱하고 늠름해 보였다. 생명수 같은 봄비를 잔뜩 머금은 나무를 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런 노래 아세요?" "네, 봄비 무척 좋아해요! 봄에 내리는 비는 생명수라잖아요!"

순간 당황한 여자의 사오정 같은 대답에 그 남자는 크게 웃으며 "배따라기의 노래인데 못 들어보셨어요?" 하는 거다. 그녀는 민망함을 억지로 참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한다. "예? 아~ 노래요? 전 모르는 노래인데요." "그럼 이거 한 번 들어봐요!" 그가 배따라기의 테이프를 내밀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이 노래 가사 속의 연인은 헤어진 게 틀림없다. 사랑을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산성 산행을 함께했던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일년 뒤 봄에 결혼해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해피엔딩이다.

그후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는 남녀 듀엣곡이어서 노래방을 찾을 때마다 빼먹지 않고 꼭 챙겨 부르는 우리 부부의 18번곡이 됐다. 해마다 빛깔 고운 새봄이 되어 대지를 촉촉이 적시며 생명의 근원을 깨우는 봄비가 내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노래다.

남편이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라고 노래하면 난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라고 응답하며 우린 옛 추억에 잠긴다. 지금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예쁜 두 딸과 함께 남한산성을 찾곤 한다. 해마다 남한산성의 봄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난다.

김태욱·중원구 성남동

아버지의 봄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봄은 아직 멀리 있는데 이쯤 되면 봄이 기다려진다.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봄이 오고 봄비가 내릴 테니 자연의 신비스러움을 보며 감탄에 감탄을 하실 아버지 얼굴을 떠올려 본다.

처녀만 봄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연세 드신 아버지께도 봄이라는 계절은 마음 설레게 했었다는 걸 예전엔 몰랐다. 어느 해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반갑지만은 않은 봄비가 내리던 날, 24시간 경비 일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오신 아버지께서는 아침식사만 드시고 외출 준비를 하셨다.

"비도 내리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쉬세요. 당신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줄게요."

"봄이 좋아, 봄비가 좋아 나가는 것이여." 어머니의 만류에도 기어이 나가시며 내뱉던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구수한 사투리와 낭만에 또 한 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베란다로 나가 검정우산을 쓰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아날로그 영상처럼 시야에서 아른거린다. 봄이 좋고, 봄비가 좋아 나가신다는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무얼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봄비가 그친 저녁쯤 아버지께서 양손 가득 봄나물을 안고 돌아오셨다. "이것으로 저녁에 봄나물 파티합시다."

저녁상에 올라온 달래 된장찌개, 냉이무침, 어머니의 솜씨 덕에 향기로운 자연 그대로를 맛볼 수 있었고 후식으로 먹은 쑥 개떡의 맛도 일품이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인사동 근처에 볼일이 있어 나가셨다가 모란시장에 다녀오셨던 것이다. 봄비 내리는 날, 아버지의 여행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서은주·분당구 정자동

'독자 마당' 안내

다음호부터 '글마당' 코너가 시민 여러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독자 마당(시민 광장)' 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수필 외에 독자 의견을 추가로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호 글마당 주제는 '텃밭'

수필·콩트 형식의 사연을 원고지 5매 이내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주소와 연락처 없을 시 게재 불가)

독자 의견·제보 받습니다

〈비전성남〉을 보신 후의 소감이나 일상에서 일어난 각종 소식, 독자제보·투고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원고 마감 : 매월 12일까지
– 이 메 일 : snvision@cans21.net
•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 전 화 : 729–2714~5

3월 4일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오는 3월 4일(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을 이어가는 행사가 성남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배우고 또 한 해의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성남문화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와 잔디광장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 연날리기를 재현하고 시민 민속대행진을 펼치는 등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풍물놀이, 경기민요, 창작 연 띄우기·기예 시범 등의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당일 참가자를 접수해 연날리기, 윷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등 종목별 민속대향연도 펼친다. 특별행사로 떡치기·엿치기·가훈 써주기 등이 진행된다. 문의 756-1582

성남풍물단체연합=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태평동 탄천 축구장에서 '성남시민 하나 되는 2007 숲내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연다. 터밟기 대동 풍물 길놀이로 시작, 정월대보름의 의의와 내용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민속놀이 마당에선 쥐불놀이, 강강수월래놀이 등을 선보이고, 뽐내기 한마당에선 아이들 풍물, 청소년 사물놀이 등으로 함께 어우러지며, 마지막 달집 마당에선 풍물한굿, 풍신탈춤 등 시민들과 함께 대동의 춤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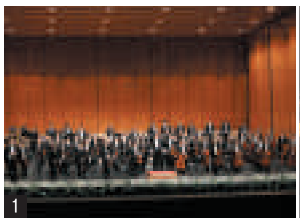
한편 이날 연날리기에 사용할 연 교실을 2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며, 모란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일대를 돌며 액을 막고 복을 주는 지신밟기도 3월 1일 진행한다. 문의 751-4831

제88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성남문화원은 3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분당 율동공원 내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전행사로 풍물굿패 살매의 풍물공연이 있다. 문의 756-1582

성남시립예술단 봄맞이 공연 풍성 <www.sn-pac.or.kr>

성남시립예술단이 새봄맞이 '신춘음악회', 이색 웰빙 콘서트 'O2 Concert(산소음악회)' 등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새롭고 활발한 봄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자리다.


1

2

❶성남시립교향악단 제35회 정기연주회

'한국을 빛낸 젊은 영웅 시리즈' 첫 편으로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를 초청, 2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연주회를 갖는다. 지휘자 최승한(연세대학교 교수)의 지휘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교향곡 5번(종교개혁)을 협연한다. 전석 1만원(청소년 5천원). 예매문의 티켓링크 1588-7890, 공연문의 729-5645, 795-8177

❷성남시립국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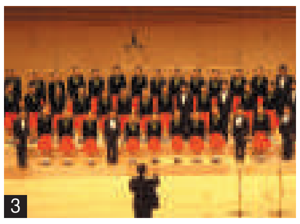
'신춘음악회'가 3월 14(수)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상일 지휘자의 지휘로 1부에서는 관악합주 '대풍류', 판소리 '심청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협주, 사물 '비나리'가 연주되며 2부는 통속민요 메들리,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 거문고 풍류로 2중주, 국악관현악을 위한 국민애창환상곡 '성남'으로 꾸민다. 전석 5천원. 예매 티켓링크(성남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티켓링크로 접속가능). 문의 729-5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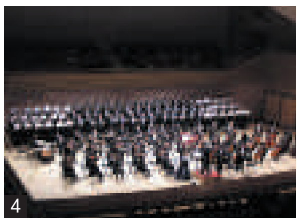
❸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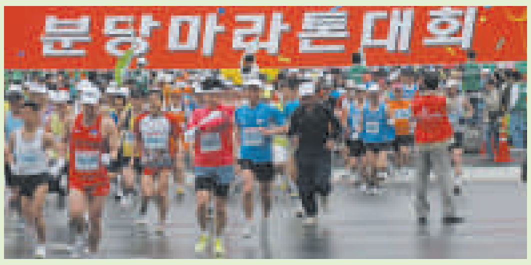
새봄을 여는 음악회 '사운드 오브 뮤직'이 3월 27일과 28일 오후 7시 30분에 성남시민회관 대강당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각각 개최된다. 문의 729-5434

❹성남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O2 Concert(산소음악회)'가 4월 4일(수) 오후 7시 30분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음악 외에 공연장 내 객석과 무대에 산소 발생기와 아로마 발생기를 이용, 공연장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색 공연이다. 무대에서는 분당구보건소 지원으로 비만·금연·우울증 상담도 진행하는 '웰빙 콘서트'. 아카펠라와 차분한 음악에 이어 음악치료에 사용되는 국내외 유명한 팝과 가요들을 들을 수 있다. 문의 729-5436


3


4



제8회 분당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 대회일시 : 2007.4.15(일) 9:00
- 집결장소 : 분당중앙공원
- 종 목 : 하프코스(21.0975km), 건강코스(5km)
- 코 스 : 분당중앙공원 앞 출발~시내구간(1.63km)~탄천 자전거도로 순환코스
- 주최·주관 : 분당검푸마라톤클럽
-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 참가신청 : 2007.3.26(월)까지 선착순
- 참 가 비 : 하프코스 3만원, 건강코스 1만5천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umpu.org) 참가신청 클릭 분당마라톤게시판 및 대회사무국 714-8367

정보나눔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2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 보내는곳 :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 문 의 처 : <비전성남> 편집실 Tel : 729-2714~5, Fax : 729-5439
■ E-mail :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금광2동사무소 임시 이전안내
- 이전사유 : 금광2동사무소 신축
- 이전일시 : 2007.3.3~3.4
- 이전장소 : 금광2동 3127번지 미성빌딩 3~4층(새마을금고 옆)

금광2동사무소 750-2863 Fax 750-2664

중원구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안내
- 모집대상 : 주민자치센터 강사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모집분야 : 6개 분야 48개 프로그램 (문화·여가, 건강·생활체육, 전통예술, 어학분야, 어린이·청소년, 과학, 장의력미술, 기타 등
- 모집인원 : ○○○명
- 접수기간 : 수 시

중원구청 총무과 자치지원팀 750-2331
각 동 사무소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지원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부부간에서 이혼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 소송지원
- 준비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진술서 등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동서울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평생교육과정 : 댄스스포츠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필라테스트, 인도정통생활요가, 골프교실 등 30개 과정
- 학점은행과정 : 컴퓨터공학사, 사회복지학사, 경영학사, 전자계산학사, 정보통신공학사, 건축학사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등 28개 과목
- 지원자격 : 일반 누구나(학력, 연령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07.2.12(월) ~ 3.2(금)

동서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ec.dsc.ac.kr)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모집
- 모집인원 : 중 440명, 고 330명
- 지원자격 : 교육감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교육연한 : 2년(각 학년 8개월) 주 6일 수업

일성여자중·고등학교 02-716-0069

양원주부학교 학생모집
- 모집인원 : 한글 신수반 100명, 기초반 300명, 중등부 1,000명, 고등부 300명
- 지원자격 : 초등학교 미졸업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력 소지자
- 교육연한 : 각 과정1년(주 3일)

양원주부학교 02-704-7402

교통질서위원모집
- 모집대상 : 수정구 관내 거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 봉사하실 분
- 자격조건 : 책임감 강한 사람, 30세 이상 남녀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742-0409 http://car.hometar.com/

가정봉사원 모집
- 모집분야 :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목욕 서비스를 해주실 분
- 봉사참여 : 정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 참여대상 :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 봉사조건 : 6개월 이상 주1회~2회 봉사활동
- 모집기간 : 수 시

수정노인복지회관 731-3393

ELP주니어 영어 과정안내
- 개 강 일 : 2007.3.12(월)
- 수강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 교육내용 : 원어민 교수님과 한국인 보조 선생님이 함께하는 영어수업
- 교육장소 : 을지관5층 외국어교육원

을지대학교 외국어교육원 740-7297

육군부사관 모집
- 지원자격 : 고졸이상, 18~27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
- 접수기간 : 수시 모집(여 부사관 연2회)
- 선발절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 학과 및 소양평가

육군본부 847-0220
www.army.mil.kr

지뢰지대 위험 안내
- 지 역 :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검단산 공군 부대
- 내 용 : 일부 미 제거된 지뢰
- 주의사항 : 등산객 등은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접근 금지

공군 제8547부대 장 749-5774~7

가스 안전 관리
가스를 사용하기 전 냄새확인, 주방 등은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합시다.
가스 냄새로 불파랜지를 위해 전원코드는 반드시 찾아두셔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합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758-0019

봄 학기 사회교육 안내
- 모집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성인프로그램 : 컴퓨터교실, 헤어디자인스쿨, 서예교실, 양재홈패션, 음악교실, 요가교실
- 아동프로그램 :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글짓기논술교실, 체르니음악교실, 영재수학교실, 창작미술교실, 태권도교실, 속파백마녹교실, EQ주역동화, 우쉬주산교실
- 부모프로그램 : 주부가요교실, 노인대학, 우리 글배움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4-6333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07.2.20(화) 10:00 선착순
- 강 좌 명 : 독서치료, 자녀독서지도, 부모논술교실, 부모역할훈련, 한문, 한글사랑방, 한문서단, 창도문화, 서예, 바이올린, 방과 후 도서관
- 신청방법 : 방문접수(50%) 및 홈페이지 접수(50%) 신분증 지참

정보봉사과 730-3552~4

수정문화정보센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대 상 : 성남시민
- 접수기간 : 2007. 2. 27(화)부터 선착순 각 강좌별 인터넷 접수 시작시간 참고
- 접수방법 : 전 강좌 인터넷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www.snsujeonglib.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강 좌 명 : (성인)자녀 글쓰기독서지도, 동화구연, 도자공예, 자녀 신문활용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한글서예, 부모교육 자녀교육, 중국어회화, 데생 & 수채화, (학생)시사 논술교실, 독서 논술교실, 신문기사교실, 스피치 리더십교실, 생각 그물 역사여행, 에디슨 과학교실, 영재바둑교실, 이야기 동화미술, 신나는 동화나라, 영어동화

정보봉사팀 743-9600

중원문화정보센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대 상 : 성남시민
- 강좌내용 : 독서논술지도사, 동화구연전문가, 기초영어, 기초일본어, 생활일본어, 중국어교실, 직장인을 위한 서예, 도자공예, 자녀와 친해지는 대화법, 자녀리더십 향상교실(심화), 자녀창의력을 키워주는 NIE, 책속으로 논술교실, 책너머 논술교실, 인물로 배우는 역사이야기, 엄마와 함께 하는 과학실험, 재미있는 스토리영어, 피카소 미술교실
- 접수방법 : 선착순 인터넷(www.snjungwonlib.or.kr) ※ 연락처 정확하게 입력요함 : 주소, 전화, 핸드폰번호

정보봉사팀 752-3916

성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교육 안내
- 교육내용 : 부의탁 독거노인 수발 교육
- 봉사과정 : 자원봉사과정, 유급과정
- 대 상 : 교육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

성남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747-1886

성남일화 3월 3일 K-리그 개막전
- 대회명 : 2007 K-리그 개막전
- 일 시 : 2007. 3. 3(토) 오후 3시
- 장 소 : 탄천종합운동장
- 대 전 : 성남일화 vs 전남드래곤즈

3월 7일 AFC 챔피언스리그
- 대회명 : AFC 챔피언스리그 2007
- 일 시 : 2007. 3. 7(수) 오후 7시
- 장 소 : 탄천종합운동장
- 대 전 : 성남일화 VS 베트남 동탐롱안

성남일화 천마축구단 709-4133

■ 2007년 3월중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기간/접수처	전화번호
중원문화 정보센터	한글 2004	성남시민	3. 6~3. 29(월~금)	10:00~11:30	30	2. 26 ~ 2. 28 (선착순접수) www.snjungwonlib.or.kr/ (전화접수 불가)	752-3916
	웹애니메이션	성남시민	3. 6~3. 29(월~금)	13:00~14:30	30		
	컴퓨터기초	성남시민	3. 6~3. 29(월~금)	15:00~16:30	30		
	직장인을 위한 포토샵	성남시 직장인	3. 10~3. 31(토)	10:00~13:00	30		
성남시 수정 청소년수련관	컴퓨터기초	초등1~2	3월 ~ 5월(화,목)	15:00~15:50	15	2. 26(월)부터 (선착순 마감) 수정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부(2층)	740-5244
	인터넷기초	50세이상	3월(화,목)	10:00~11:30	15		
	한글기초반	50세이상	4월(화,목)	10:00~11:30	15		
	엑셀기초반	성인	5월(화,목)	10:00~11:30	15		
사)성남시장애인 정보화협회	워 드 반	저소득층자녀	3개월 (월 ~ 금)	15:00~16:00	24	수시모집 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732-6884
	웹디자인전문가 교육반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4개월 (월, 수, 금)	14:00~18:00	24		

기관 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기간	전화번호
사)성남시장애인 정보화협회	PC활용기초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40	수시모집 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732-6884
	엑셀자격증반		3개월 (월, 수, 금)	11:00~12:30	24		
	워드자격증반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24		
	ITQ자격증반		3개월 (월, 수, 금)	14:00~15:30	18		
	인터넷반		3개월 (화, 목)	09:30~11:00	24		
	파워포인트		3개월 (화, 목)	11:00~12:30	24		
성남시장애인 종합복지관	HTML, 나모, 드림위버, 자바, 무선인터넷 (WML2, KUN, XHTML)	성남시 거주 장애인	2개월 (월~금)	10:00~11:00	선착순	수시모집 장애인등록증 지참	733-3322
	포토샵, 일러스트			11:00~12:00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기초			15:00~16:30			
	홈페이지관리사		8주	14:00~15:00			

※ 통 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내 고장 명물, 모란민속 5일장

없는 것 없는 옛날 장터 추억 아련

모란 전철역 근처 성남대로변 한편에 5일마다 사람들이 북적댄다.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규모 큰 민속재래시장 중의 하나인 모란민속5일장.

모란 사거리에서 단대천 쪽으로 폭 30미터, 길이 300미터 가량의 복개지 위에 4일, 9일이 들어있는 날마다 장이 서고, 경기도 일대와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파는 물건도 다양하다. 먼저 입구 쪽에 있는 관상용 식물을 비롯해, 굼벵이 지네 인삼 등 현대식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약재, 쌀 보리 콩 등 잡곡 파는 노점, 잡곡부 한편에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 놀라게 연신 펑펑대는 강냉이 터지는 소리며, 싱싱하고 값싼 생선과 야채 옷 신발 등등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는 것이 여기 모란장의 자랑이다.

무엇보다 지나가는 사람 발길을 붙잡는 것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칼국수, 빈대떡, 돼지고기 등 먹거리 파는 노점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는 인심 넉넉한 장터아주머니의 푸짐한 칼국수 한 그릇을 마다하긴 어렵다.

요란하게 염색된 바지저고리를 입고 가위소리 내는 엿장수 아저씨는 사오십대 이상의 세대에겐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던 그 옛날 장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장터 후미에는 고추 파는 노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거래되는 고추의 일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공급되기도 해 서울의 고추 시세가 모란장의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정도다.

이외에도 애완견 가금류 등을 파는 노점들이 장터 끝쪽에 자리하고 있다.

대동강변 모란봉 그리며 이름한 '모란장'

모란장 상인회 회장 전성배

1960년대 초 실향민들이 모여 5일장을 만들고 대동강변 모란봉을 그리며 이름하였다는 모란장은 실상 그 주변의 상설 모란시장과 많은 기름집, 건강원, 개고기 등으로 더욱 유명하다.

민속 재래시장이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아직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모란장의 생명력을 두고 모란장 상인회 회장 전성배 씨는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는다.

첫째,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둘째, 규모로는 전국 최대라는 화훼부에서 가금부에 이르기까지 13개 품목별 부서에 1천여명의 상인이 자리잡고 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근처에 성남시외버스 정류장과 순환고속도로가 있고, 모란 전철역 앞에 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이 서는 날이면 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6만~7만이고,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면 10만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노인인구의 이용이 많아 평소 4천장 나가는 노인 무임승차권이 장날에는 1만장이 넘는다"고 모란역 역무원 박재성 씨는 말한다.

현대화 흐름 속 생존 전략 모색中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모란장이 언제까지나 재래시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용자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눈여겨보면 대개 사오십대 이상이고 젊은 사람은 없다. 시설면에서도 현대식 마트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에 모란장 상인회와 성남시에서는 고장의 명물 모란장을 육성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우수 재래시장 견학도 계획하는 등 현재 고심 중이다.

현재 모란장 부지를 남쪽으로 이전, 장터를 더 넓히고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아트센터 및 문화원과 연계해 장날에 대학생 동아리 축제, 소규모 공연 등을 펼쳐 향수를 달래는 중·장년층과 호기심 많은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제작,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및 시·구청 출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5천원권과 만원권 2종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중앙시장, 현대시장, 성호시장,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 야채시장, 단대마트시장, 코끼리 상가, 돌고래시장, 미래타운 등 관내 재래시장 10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에 이르는 민속5일장이 내 고장에 있다는 것 또한 자랑이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니 부디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내 고장의 명물 모란민속5일장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전미향 기자 mhchun@cans21.net

* 온수는 에너지, 수돗물을 아껴 씁시다.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